

### 행복한 책 읽기

‘이야기 동양신화’(김영사 펴)



신화는 이야기로 풀어낸 인류(민족)의 기원이며 역사다. 민족의 원형과 삶의 방식이 녹아있는 문화유산이며 신성한 뿌리다. 온갖 상징으로 쓰인,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 이렇게 형성된 신화의 권능이야말로 그 민족의 역사적 자존심과 자긍심이 된다.

‘이야기 동양신화’는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천상과 지하세계를 넘나드는 광대한 서사와 신선·영웅·형제들의 신기한 출생·죽음 이야기가 흥미진진했다. 온갖 기이한 동·식물들이 상상력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마칠 때까지도 ‘중국신화’가 왜 ‘동양신화’로 둔갑(?)되었는지 불만이었다. 지은이 ‘정제서’는 책 제목을 ‘이야기 동양신화’로 정한 이유를 말했다. “중국신화를 중국의 정유물로 보지 않고 동양신화의 입장에서 조명하자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매한 논리다. 지은이의 이런 관점

바로 우리 신화에서 잃어버린 이야기이며 중국 전정신화에 있는 승리의 기록이다. 중국은 신화를 왜곡했고(일본의 ‘고서기’처럼) 역사서를 왜곡(사마천의 ‘사기’로부터)했으며 수 세기에 걸쳐 현재 ‘동북아공정’으로 진행되었다. 동북아공정은 우리의 상고사를 중화주의의 틀 안에 넣어 중국에 편입시켜 지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옮긴 중국신화에 불과하다.

### 신화를 변형한 중국문화사

은 이 책의 제목을 충분히 변명하지 못한다. 중국신화는 중국신화일 뿐이다. 동양에는 한국신화(단군신화)를 비롯해 인도신화(라마이아), 만주족신화(우치구우러본) 일본신화(고서기) 등 민족마다 고유한 신화가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중국, 중국 문화를 동양문화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의의 관점이 중국신화를 동양신화의 총체신화로 파악한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단군 이전의 신화는 없는 걸까. 그나마 부실한(꿈을 조상으로 둔 미개한 신화로 왜곡된) 체로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단군신화’ 이전의 고대신화는 없는 걸까. 우리의 상고사는 식민사관에 의해 뿌리 뽑힌 지 오래다. 실제 한민족의 뿌리는 보다 더 먼 시대에 있었다.

파미르고원(역사서 ‘부도지’에 따르면)에서 발원하며 8,500년 전의 홍신문화(중국 요녕성)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잃어버린 영토와 변형된 중국신화 속에 있다. 광활한 중국대륙, 고대 유적지 속에 우리 민족의 기원과 신화의 진실, 정통 역사가 있다.

‘이야기 동양신화’를 읽는 일은 패권주의의 중국문화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들의 다원적 중화사상 속에서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내는 일이다. 신화 속 상징,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만만치 않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 전남대 ‘광주·전남이 읽고 톡(talk) 하다’

정유정 '28' 등 한책 선정 투표

전남대학교가 올해도 독서문화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대는 ‘광주·전남이 읽고 톡(talk) 하다’(이하 광주톡) 2014년 사업을 토대로 지역사회 담론공동체 형성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 프로그램을 전남지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독서를 매개로 문화공동체를 결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대는 최근 ‘한책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시도민이 읽을 ‘한책’ 후보 도서 10권을 선정했다. 4월과 5월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광주톡 홈페이지(http://ktalk.jnu.ac.kr) 투표를 실시해 '2014 한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교수, 언론인, 사서,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한책선정위원회는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성과 시의성을 감안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독자들이 공유할 만한 주제의 책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한책이 선정되면 선포식과 ‘톡 콘서트’, 토론회 등을 열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간 독서토론, 클럽 회원 국내외 문화기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는 5월말까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할 독서클럽을 모집하고 있다.

후보도서 10권은 다음과 같다. ▲28(정유정) ▲3분 고전 2(박재희) ▲구분준의 마음을 품은 집(구분준) ▲남편의 서가(신순옥) ▲높고 푸른 사다리(공지영) ▲눈물을 자르는 눈개풀처럼(함민복) ▲무등산(박선홍) ▲쓰촐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도정일) ▲여덟 단어(박용현) ▲인생수업(법륜)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014 광주비엔날레 선정작가 최운형·박세희씨



오는 9월 열리는 2014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선정된 박세희(왼쪽), 최운형 작가.

### “내 작품 철학 비엔날레에 녹아들 것”

‘터전을 불태우라’ 주제 9월 5일~11월9일

최운형

남자 권력에 저항하는 여자 ‘몬스터’

박세희

재탄생의 다른 이름 소멸 ‘상실의 풍경’

2014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에서 세계 유명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쥔 두 명의 젊은 작가를 최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만났다.

최운형(여·38), 박세희(여·29)씨는 세계적인 무대에 참여한다는 기대감과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철학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내 실용적이고 도전적인 미술을 선보이는 비엔날레라는 무대에 잘 어울리는 작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작가는 지난 3월 '2014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에서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됐다. '포트폴리오 공모'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젊은 작가들을 국제 미술계에 등용시키기 위해 '2012 광주비엔날레' 때 도입했다. 당시 조현택, 최미연, 로이스 응씨가 선정돼 광주비엔날레 무대를 밟았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석사를 마친 최운형씨는 현재 홍익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고민하다가 사운 것”이라며 민트캔디를 내밀며 말을 꺼낸 그는 “좋은 감독, 작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귀국 이후 오랜 미국 생활에서 느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언어적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냈던 그는 최근 페미니스트적 성향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몬스터’ 시리즈도 그런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비엔날레 참여를 목적으로 작업한 작품은 아니다. 꾸준히 해오던 작업이 주제와 부합해서 선정된 것 같다.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고, 내 작품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 광주비엔날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 나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성과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이번 주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작업과도 어울릴 수 있는 주제인 것 같다.”(최운형)

조선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세희씨는 런던예술종합대학에서 사진으로 전공을 바꿨다. 조소를 전공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미대에 진학한 그는 개념적인 철학들을 작품으로 더 잘 표현해 내기 위해 사진을 선택했다.

“솔직히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를 듣고 놀랐다. 지난해 초부터 생생과 소멸,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것들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상실의 풍경’ 시리즈를 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소멸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멸이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이번 공모전에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다.(웃음) 비엔날레 참여 작가는 누구나 꿈꾸는 것이다. 동시대적 예술이 함께하는 곳이 비엔날레라고 생각한다.(박세희)

최운형씨에게 작품은 하나의 소설과도 같다.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몬스터’ 시리즈도 한 여성이 남성들이 가진 권력 등에 반대하며 괴물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회화는 무엇인가. 회화는 픽션이라고 생각한다. 관람객들이 내 작품 자체를 재미있게 봐줬으면 한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무머러스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가 악역을 하면 대중들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듯 나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웃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겠다.”(최운형)

최운형씨는 단편영화 ‘레D 액션’ 미술감독과 영화 ‘저스트 프렌즈’에 제작자를 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참여했다고 한다. 박세희씨는 최근 ‘양념쳐 스튜디오’ 대표로 활동하면서 문화기획자로도 일하고 있다.

“아직은 전문적이기보다는 문화, 예술과 교감, 소통하는 차원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항상 ‘재미있는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작품활동과 문화기획 일을 함께 하면 내 작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동남아 등 소외지역 아이들을 위한 아트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박세희)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판페라 이순신 광주팬 만난다

전남도립극단, 내일 문예회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해 지난 2012년 여수 예술마루에서 초연된 ‘판페라 이순신’은 전남도립극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판페라는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 요소를 가미한 형식.

‘판페라 이순신’은 첨단 영상기법을 도입한 입체감 있는 무대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했다.

‘판페라 이순신’이 처음으로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이순신’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도립극단 상임지휘자 박승희씨가 예술총감독으로 참여 지휘와 연출을 맡았으며 대본은 임영욱씨가 썼다.

지난해 국립창극단이 무대에 올린 화제가 됐던 ‘메디아’를 비롯해 국립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아랑’,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등을 작곡한 황호준씨가 음악, 안덕기씨가 안무를 맡았다.

주인공 이순신 역으로 양신씨가 출연하며 박무성, 이서연, 최운성·박무선·윤세란·김육란·표윤미씨 등 도립극단 단원과 객원배우 등 모두 100여명이 출연한다.

박승희 상임지휘자는 “영상 효과를 극대화해 극의 상황과 심리가 잘 표현되도록 구성했다”며 “전통 공연양식과 현대적 기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5만원~1만원. 사랑티켓 회원(24세 이하, 65세 이상)은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베트남 프렌드십 특별전

내일부터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한국과 베트남 미술인 참여하는 한국-베트남 프렌드십 특별전이 3~9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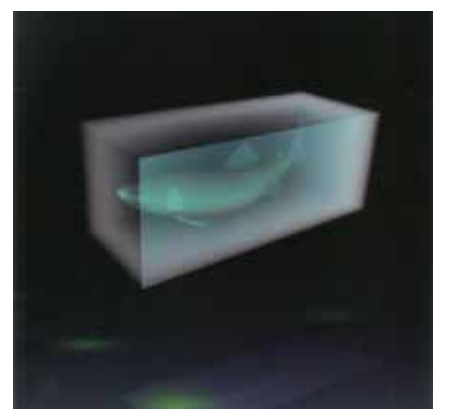
“함께 그러나 다르게”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베트남 작가 20명, 김민경, 강다희, 김종일 등 한국작가 25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참여하는 국제전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회장 김영희)와 한-베미술교류협

회를 둘러보게 된다.

전시 주제 ‘함께, 그러나 다르게’는 함께 하되 다름을 통해 서로 배워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영희 회장은 “베트남은 1925~1954년 프랑스 식민통치시대 때 서양미술의 영향을 받은 1세대 작가들이 배출돼 서양미술의 뿌리가 우리나라보다 한 세대가 앞서 있다”며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시대, 개혁 개방의 도이머이(doimoi)시대를 거치며 서양화의 형식을 따르되 베트남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영희 작 'A salmon trout'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원동 휴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